

청정선거 이번엔 꼭...

'교단자정센터' '대중공사' 등 단체 감시활동 나서

10월 26일 조계종 24개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제14대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정선거를 촉구하는 출·재가 불교계 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청정선거를 위한 대중공사(가칭·준비위원장 만초)'를 비롯해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숙)' 등은 종단의 선거풍토에 대한 문제제기와 감시 역할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조계종 소장파 스님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중공사는 9월부터 13대 총회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0월중 설문 결과를 토대로 중앙총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진단하고 중앙총회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초 스님은 "마곡사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 선거감시활동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재가단체들과 공조해 14대 중앙총회선거가 청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단자정센터도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무원장에게 강력한 청정선거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와 성태웅 우리는선우 이사장, 김희숙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익석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재가단체장들은 10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비공개면담을 갖고, '청정하고 바른 선거를 위한 재가불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경합이 예상되는 몇몇 교구를 중심으로 급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총무원장스님이 청정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종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점 등을 직접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단자정센터는 △입후보자의

엄정한 자격심사 △취지에 부합한 직능직 의원의 선출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재가불자들의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만해교육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단자정센터는 부정비리의혹이 있는 스님에 대한 출마금지, 엄격한 자격심사 감시, 후보자 청렴 서약 운동, 부적격 자격 원천 제시 등의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10월 18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단부패근절 시국토론회'를 개최해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여론을 확산키로 했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중앙총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재가불자들의 역할을 총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영·조용수 기자

'방장 추대 될까' 관심 통도사 내달 2일 산중총회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주지직무대행 지은가 수차례 무산됐던 '영축총림 방장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11월 2일 오후 2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한다.

방장후보 선출 무산으로 내용을 겪어왔던 통도사가 최근 주지 직무대행에 임명된 지은 스님 취임 후 열리는 첫 산중총회 성사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호법국장에게 관행 스님

조계종 호법국장에게 관행(觀行) 스님이 10월 10일자로 임명됐다. 관행 스님은 법용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8년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2000년 송광사에서 법용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5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조용수 기자

'학인들의 축제' 열린다

전승연, 19일 불국사서

전국승가학인연합의장 범어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주 불국사 선영당에서 제18회 전국승가학인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첫째 날은 1부 개회식 및 기조발제에 이어 2부 역경대회 및 불교 의식 경연대회가 열린다. 이 때 학인들은 역경 서도 장발 법문 외국어 부문에서 그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3부는 불교문화마당 및 어울림 마당으로 꾸며진다. 여기에서는 문화공연과 함께 불교문화공연 및 만남의 장이 펼쳐진다.

대회 둘째날은 축구 및 족구를 비롯한 체육행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남동우 기자

포교사 자격 복권 접수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자격정지 당한 포교사들의 복권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희망자는 응시원서 1부, 자격미 갹신 사유서 1부, 포교사 의무서약서 1부 등의 서류를 첨부해 포교원(02-2011-1891)으로 접수하면 된다. 11월 15일 1차 서류전형을 통해 16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합격자가 공고된다. 합격자들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수원 용주사에서 열리는 2차 연수를 통과해야만 최종 합격 처리된다. 발표는 21일.

남동우 기자



군포교 위해 중단 초월한 '한마음'

자비실천운동본부, 전방부대와 결연 ... 12일 합동위령대제



(사)자비실천운동본부는 6527부대와 결연을 맺고 군법당 건립 서원을 세웠다. 사진은 10월 12일 열린 한국전쟁 57주년 호국영령 합동위령대제 모습.

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6527부대와 결연을 맺은 것은 여단급 부대임에도 군법당이 없어 장병 포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실천본부에서는 향후 군법당 건립과 함께 연 2회 정기 위문과 함께 호국영령 합동위령대제를 매년 봉행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도 300여명의 과자, 음료, 떡을 비롯해 육군본부군중실에서 발행한 <마음 닦는법> 700권을 구매해 보냈다.

실천본부회장 해광 스님은 "장병들이 군생활 하면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부대 위문시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었다"며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조그마한 법당이더라도 건립해 장병들이 부처님의 품에서 건 강하고 웃으며 군생활을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527부대장 김해수 대령은 "저희 부대는 6·25 당시 전장의 용맹을 떨친 부대로 이번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는 뜻 깊은 행사를 열게 되어 많은 스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민군이 상호 협력하여 군장병들의 정신교육 함양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연천=김두식 기자

태고종 선암사사태 장기화 전망

8일 물리적 충돌... 합동등도수계산림은 진행

운영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선암사 문제가 결국 폭력사태로까지 비화된 이후 별다른 진전없이 표류하고 있어 장기화될 전망이다.

10월 8일 오전 선암사 새 주지 승조 스님측이 경비업체 직원을 동원,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를 '점수'하면서 경비업체 직원과 선암사 주지측 급용 스님 측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5명이 부상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승조 스님은 "이번 사태는 '점수' 차원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임무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불상사"라고 말했다.

前 주지 경담 스님은 "현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전·현직 주지 및 소임자들이 일괄적으로 물러난 뒤 올해 말까지 방장 스님 체제로 임시 운영하며, 12월중으로 선암사 재적승 전산대회(총회)를 열어 새 주지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태고종 총무원과 선암사 전임 주지측과의 갈등으로 연기됐던 '태고종 제30기 합동등도수계산림 입제식'이 9일 선암사 대웅전에서 봉행돼 4주간의 교육을 시작했다.

11일에는 선암사 경내에서 대지중이던 전·현직 주지 스님측과 총무원 및 전담 총무원 등은 선암사 무우전에서 7인 대책위원회를 갖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양측은 협상 진행과정에서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선암사 운영위원회 개편과, 재산권 문제, 전임 주지 퇴진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양측이 16일 '제 1차 선암사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날 회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대피어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드피어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연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大韓佛敎 法相宗

宗正 鶴岩 元老委員 法輪 鶴山 泰岩 慈峰

| | | | |
|---------|---------|---------|-----------|
| 總務院長 海月 | 教育院長 教惠 | 諮問委員 清遠 | 釜山宗務院長 芝菴 |
| 副院長 海道一 | 布教院長 智宇 | 志晏 | 大邱宗務院長 天光 |
| 宗會議長 茂晟 | 研究院長 圓常 | 忍山 景峰 | 蔚山宗務院長 正武 |
| 副議長 景天命 | 弘報院長 修昃 | 法雪 性山 | 慶北宗務院長 道瑄 |
| 司正院長 慧命 | 參禪院長 道瑄 | 雪峰 性山 | 江原宗務院長 大光 |
| | 副院長 天雄 | 德峯 | 忠北宗務院長 江月 |
| | | 智泉 | 忠南宗務院長 景天 |
| | | | 光州宗務院長 聖雲 |

| | | | | | |
|---------|---------|---------|---------|---------|---------|
| 總務部長 海明 | 教務部長 珪靜 | 護法部長 振性 | 總務局長 法空 | 教務局長 禪潭 | 護法局長 奉文 |
| 財務部長 大光 | 社會部長 雪峰 | 文化部長 大華 | 財務局長 法進 | 社會局長 江明 | 文化局長 仁明 |
| 教育部長 月明 | 布教部長 月岩 | 研究部長 寶月 | 弘報局長 法性 | | |
| 弘報部長 聖雲 | | | | | |

총무원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69-8 전화 031)653-1250.1 팩스 031)653-1253